

‘비싼 영화 티켓값’ 논란... 저가 광주 극장들 ‘눈길’

국내 3사, 코로나 이후 1만5천원대 배우 최민식 소신 발언 논란 점화 광주극장·독립영화관 1만원 이하 독립영화·고전명작... 상영작 다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파르게 오른 영화 티켓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배우 최민식의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 내려야 한다”는 소신 발언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저렴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극장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3사(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는 코로나19 당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만2000원(주말 기준)이었던 영화관 티켓 가격을 현재 1만5000원 수준까지 올렸다. 특별상영관(IMAX·4D 등)의 티켓 가격은 2만원에 달하고, 여기에 팝콘과 콜라까지 구매하면 ‘영화 관람’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만 2인 기준 최소 4만원에 이른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티켓값 담합·폭리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 영화 티켓값은 비싼 편이다. 글로벌 가격 비교 플랫폼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국의 영화 평균 티켓값은 11.23달러(약 1만5000원)로, 조사 대상국 96개

국 중 27번째로 높았다. 영화 티켓값을 1인당 명목 GDP 대비 환산하면 0.033%로 미국(0.016%)의 2배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1만원 이하의 저렴한 관람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생활을 멀리했던 소비자 자신이 티켓 가격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개봉작이 아닌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을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어 이색 데이트를 원하는 커플, 실내 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족 관람객, 광주지역에만 있는 극장에 방문해 보고 싶은 여행객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먼저 광주극장은 동구 충장로에 자리 잡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일극장으로, 1935년 개관 이후 꾸준히 독립·예술 영화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이날 기준 현재 상영 영화는 △퍼펙트 데이즈 △비포 선셋 △더 윈더스 등이다. 관람료는 성인 기준 1만원, 청소년 9000원, 극장 후원회원 등록 시 7000원 등이다. ‘패키지 티켓’ 구매 시 영화 세 편을 2만7000원에, 다섯 편을 4만원에 관람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패키지별로 각각 1~2달로 명시돼 있다.

동구 제봉로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 위치한 광주독립영화관은 101석(장애인 2석 포함) 규모로, 이용 요금은 일반요금 기준 성인 1만원, 할인요금 기준 청소년·경로·국가유공자 8000원, 장애인(동반 1인) 6000원, 단체(10인 이상) 9000원이다. 이날 기준 상영 중인 영화는 △문경 △샤인 △비포 선라이즈 등이다.

상영예정작, 영화시간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극장 홈페이지·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로 야외에서 고전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극장도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술극장 극장1 빅도어 야외 대형스크린을 통해 고전명작을 상영하는 ‘빅도어시네마’를 운영한다. 선착순 자유석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오후 7시에 상영된다. 상영되는 영화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1986) △사운드 오브 뮤직(1969) △타이타닉(1998) 등이다.

광주독립영화관GIFT 관계자는 “지난 5월 업계 표준을 고려해 티켓 가격을 1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관람객 수는 6800여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관람객 추이를 보았을 때 지난해와 비교해 약 20% 정도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상영 작품 다양화, 개관 6주년 기획전 등 개관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관람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광주극장 관계자는 “2010년부터 관람료를 8000원으로 유지해 왔으나, 물가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관람료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당분간 티켓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정확한 관람객 수나 매출액 현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매년 관람객 수는 크게 줄거나 늘지 않는 평이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광주극장 활성화를 위해 고항사랑기부제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의 철거 등 새 단장 기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ilbo.com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토스카’ 공연

광주시립오페라단 정기공연 내달 6·7일 광주예술의 전당

광주시립오페라단은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걸작 오페라 ‘토스카’를 제16회 정기공연으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광주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찬사를 받았던 시립오페라단의 콘체르탄테 ‘토스카’가 전막 오페라로 새로운 막을 연다.

푸치니의 ‘토스카’는 단 하루 동안 펼쳐지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를 그린 작품으로, 가수 토스카, 그녀의 연인인 화가 카바라도시, 그리고 토스카를 차지하려는 경시총감 스카르피아 사이의 긴박한 사건을 밀도 있게 그려낸다.

또 ‘1800년 6월 17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에 일어난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극적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라 보엠’,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명작 오페라로 꼽힌다.

푸치니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아리아들, ‘오묘한 조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별은 빛나건만’ 등은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 이 외에도 토스카와 카바라도시의 사랑의 이중창, 토스카와 스카르피아의 이중창이 극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공연은 세계 정상급 출연진과 탄탄한 프로덕션이 결합한 고품격 오페라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술감독 최철의 진두지휘 아래, 감각적 표현으로 호평받은 김지영의 혁신적인 연출과 사실주의 오페라의 대가 마르첼로 모타델리의 정교한 음악적 해석이 만나 푸치니의 명작을 완성한다.

비운의 여인 ‘토스카’에는 소프라노 김라희와 민숙연이 맡아 그 비극적 운명을 열연한다. 그녀의 애인 ‘카바라도시’에는

테너 윤병길·이샤야,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스카르피아’에는 바리톤 고성현·박정민 등 최정상 성악가들과 광주시립합창단, 광주CBS어린이합창단, 문화신포니에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다.

최철 오페라단 예술감독은 “무대디자인 김현정, 조명디자인 김민재, 음향감독 박기만, 의상디자인 박선미, 분장디자인 구유진, 영상 정수림 등 최고의 크리에이티브팀이 상상할 수 없던 무대를 만들었다”며 “광주가 만들고 대한민국이 감동하는, 지금까지 만나 볼 수 없던 새로운 ‘토스카’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는 오는 9월 6일 오후 7시 30분과 7일 오후 5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gjart.gwangju.go.kr)과 (티켓링크(ticketlink.co.kr))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티켓은 V 12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이다.

도선인 기자



빛소리오페라단이 창작오페라 ‘학동엄마’를 오는 31일 시작으로 광주아트홀에서 총 3회 공연한다. 빛소리오페라단 제곱

빛소리오페라단 창작 ‘학동엄마’ 공연

31일 등 광주아트홀서 3회 시대 버텨온 어머니 이야기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이 창작오페라 ‘학동엄마’를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3시 총 3회 광주아트홀에서 공연한다.

‘학동엄마’는 광주 동구 학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 9남매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희생과 헌신으로 자식들을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오페라로 재조명했다.

극심한 시집살이, 전쟁과 가난,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며 올바른 교육으로 자녀들을 키운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근대사를 구현한다.

(사)빛소리오페라단은 이 작품을 2015년 창작 초연 후, 6년 동안 꾸준히 상설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 2024문화예술진흥 공연예술분야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출연진에는 총감독 및 연출 최희석(빛소리오페라단장), 지휘 박미애(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위원), 윤금희 역 소프라노 윤희정(전문성악가, 윤'S music academy 대표), 박현태 역 테너 장호영(영랑감성학교 외래강사), 최옥분 역 소프라노 한아름(전주시립합창단 상임단원), 친정엄마 및 조순덕(시어머니) 역 메조소프라노 박정희(전문성악가), 박창범 역 바리톤 권용만(세종대 겸임교수), 박승범 역 테너 김용덕(목포하당초등학교 교사), 어린이 역 김주영(광주효동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피아노 천현주(카톨릭 평생교육원 외래강사), 엘렉톤 장희경(빛소리오페라단 음악코치), 조연출 장오영(극단 징검다리 대표) 등이 모였다.

예매는 (사)빛소리오페라단 (062-227-7442)으로 가능. 도선인 기자

ACC재단 ‘영유아기 가족 위한 예술공감 워크숍’ 공모

문화예술 기획자·단체 대상 공모기간 내달 25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4 ACC 영·유아기 가족을 위한 예술공감 워크숍’에 참여할 문화예술기획자 및 문화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영·유아기 가족을 위한 예술공감 워크숍’은 예술을 매개로 육아 스트레스를 겪는 양육자의 마음을 살피고, 가족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기획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워크숍 공모는 미술, 문학, 연극,

음악, 공예, 무용 등의 장르 구분이 없으며, 예술가 협력, 캠프, 창작, 발표, 공연, 감상 등 다양한 형식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이며, 전국의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의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기획자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CC재단은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총 3개 단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체는 최대 1000만원의 운영비 등이 지원되며, 11~12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등에서 프로그램을 무료

로 운영하게 된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육아라는 소중한고도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예술을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선물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에 소외된 대상을 발굴하는 한편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지원 서류는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